

질병이란?

김 용 서

전국한의원 원장

사람은 누구나 병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파서 병원이나 약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계십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병에 걸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아프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일평생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몸에 좋은 음식과 보약을 찾아다니고, 건강에 좋다는 운동을 하며, 병을 잘 고친다는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쇼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심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면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것, 만약 병에 걸렸다면 완전히 뿌리뽑아야 하는 것 등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질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 질병은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질병이

란, 인간이 흠(모순)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며, 그 흠(모순)을 극복하고 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간을 누구나 흠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로 보며 아울러 인간의 삶 그 자체가 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병이란 아예 없던 데서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흠을 지니고 있듯이 언제나 병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몸이 허약해졌을 때 숨어 있던 흠이 병으로 변해 겉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은 生의 法則에 따라, 즉 인간의 내적 조건(三原의 理)과 자연의 외적 조건(四大與件) 하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연의 외적 조건인 四大 與件에는 시간공간장소방위가 있는데

時間은 春 夏 秋 冬으로 사계절에 따른 조건을 말하고

空間은 風 寒 暑 濕 燥 火로 장소에 따른 天의 상태를 말하며
場所는 生 長 收 藏으로 장소에 따른 地의 상태를 말하고
方位는 東 南 西 北에 따른 조건을 말합니다

인간의 내적 조건인 三原의 理에는

첫째는 코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호흡을 말하고,

둘째는 입으로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음식을 말하며,

셋째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들인 우리 몸이 밖으로 작용하는 大小便, 性, 月經, 勞動을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겪어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런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인간은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흠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흠 없는 곳에서 살수도 없으니

존재하는 것 자체가 흠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제 몫의 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흠이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흠을 흠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 흠을 배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오히려 흠은 발전의 원동력, 건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옛말에 ‘골골 팔십’이라 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약한 사람, 즉 흠이 많은 사람은 그 흠을 보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들 중에 요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하다는 생각에만 젖어서 과로와 과식, 과음을 하는 등 불규칙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불행한 결과입니다.

흠이 병이 되어 고생하느냐, 아니면 흠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건강하게 사느냐는 오로지 우리 인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